

정책연구 2021-1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중소 지원 방안 연구

김은하 연구위원

2021. 2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ii
요약	iv
I. 연구배경	1
II. GVC 재편의 원인 및 현황	4
1. GVC 재편 양상	4
2. GVC 재편의 주요 원인	6
3. 해외 주요국의 GVC 재편 관련 정책 동향	10
4. 국내 기업의 GVC 현황	13
III.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GVC 대응 지원 방안	17
1. GVC 재편 관련 中企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17
2. 설문조사 기반 GVC 재편 대응 방향	23
3. 중소기업의 GVC 재편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 제안	26
IV. 결론 및 시사점	30
참고 문헌	31

<표 차례>

표 1 GVC 참여도 증가율	4
표 2 2020년 수출증가율	15
표 3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	19
표 4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 우선순위	20
표 5 GVC 재편 대응 정부 정책 수요도	21
표 6 GVC 재편 中 企 지원 정책제안 개요	24

<그림 차례>

그림 1 생산 활동으로 본 GVC 개념	1
그림 2 세계 무역 및 경제 성장 추이	2
그림 3 전세계 교역량 변화 추이	4
그림 4 GDP 대비 생산활동별 부가가치	5
그림 5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
그림 6 2007년 이후 중국 및 신흥국의 무역집약도 감소	9
그림 7 주요국의 수출 GDP 기여도	13
그림 8 중소기업 수출액 및 비중 추이	15
그림 9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 (복수응답)	19

요약

□ GVC 재편 주요 원인 및 양상

- 2011년 이후 세계 GVC 참여율은 52% 수준에 답보, 중간재 교역 비중은 빠르게 감소
- 美中 무역분쟁·英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한 글로벌 분업 체제의 약화와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GVC 리스크가 재편을 가속화
- GVC 재편 양상
 - 참여의 가장 주요 유인인 효율적 생산과 적시 공급 외 안정성 고려
 - 자국 및 인접국으로 생산기지 회귀를 통한 가치사슬의 지역화
 -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중심 질적 변화

□ 주요국의 GVC 재편 동향

미국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 (전략산업 지원, 법인세 인하, R&D 세액 공제 등)으로 가시적 성과* 두각 *中·아시아 의존도 감소, GVC 이동 활발
일본	공급망 개혁 정책 : 해외 생산 공장을 일부 복귀 시 대기업은 비용의 절반을, 중소기업은 3분의 2를 보조 2006년부터 중국을 대체할 ASEAN 중심 가치사슬 구축
독일	인더스트리 4.0으로 구축한 인프라 기반 리쇼어링 통한 자국 내 견고한 가치사슬 구축을 추구 *리쇼어링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 EU 중 가장 높음 ('16년, €5,700억)
한국	무역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 유턴 기업 지원확대,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한 GVC 허브화에 중점

□ 중소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 : 변화 있음 (28.2%), 변화 예상 (27.4%), 변화 없음 (44.4)
- 이런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 규모보다 (40.2%) 원자재·부품 거래처에서 (42.4%) 더 많이 체감

- 이런 변화 요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74.9%), ‘보호무역주의’ (36.2%), ‘중국 기술 고도화’ (22.3%)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인식 *중복응답
- 기업의 GVC 재편 대응 우선순위: (1순위) 판매처 다변화 > (2순위) 기술개발 통한 경쟁력 강화 > (3순위) 원자재·부품 거래처 다변화
- 정부 과제 신규·확대 지원 수요: (1순위) 판로 (비대면 수출) 지원 > (2순위)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 지원 및 국내 수급 위한 대중소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적극 정책 홍보, 현장 수요 반영, 지원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 中企 수요기반 정책 확대 방향 및 정책 제안

- 단기적으로는 기존 GVC 효율화와 장기적으로 소부장 생태계 자립화를 포함한 GVC 유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中企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 보완 및 확대, △GVC-신남방 정책의 연계, △ 국내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 ① 中企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 보완 및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식 도입 지원
 - * 설문조사결과 실제 수출이행기업은 3.5%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2020)
- ② GVC-신남방 정책 연계
 - 특정국 생산 거점 집중도 높은 품목의 제 3국 생산설비 도입 시 리쇼어링 기업 수준으로 생산 설비 지원
 - *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위해 국내 복귀 및 해외 공급망 다변화 생산 설비 도입 시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2/3 지원 시행 중
 -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부품 조달을 위한 밀크런 지원
 - * 본회·산업부·생산기술연구원, 광주 금형단지 밀크런 시범사업 실시로 물류비 40% 절감 (복수업체가 공통으로 공동물류 시스템 활용)
- ③ 국내 소부장 생태계 자립 강화 1: 공급망 회귀 기업 지원 정책

- [현황] 유턴 협력사로부터 구매 시 동반성장 평가, 공정거래협력 평가, 수출바우처 지원 등 혜택 제공
- [제안] 해외에서 원자재 구매하던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망 회귀 시, 유턴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인센티브 동일 적용
-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구매조건부 R&D 지원금이나 수출바우처 지원 차등 적용

④ 국내 소부장 생태계 자립 강화 2: 대중소 동반 회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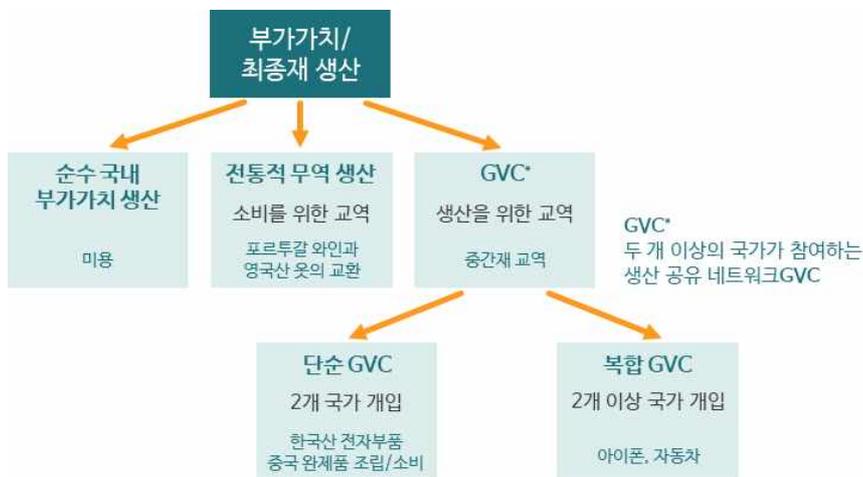
- [현황] 유턴기업 조건 완화와 추가적 혜택만으로는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제16조의3, ‘대중소 상생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 *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8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동반 국내 복귀형’을 추가도입 *現 3개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

I. 연구배경

□ 글로벌 가치사슬¹⁾ (GVC, Global Value Chain)

- GVC는 하나의 상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이 여러 국가를 거치며 생산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
- 연구개발, 디자인, 조달, 생산, 마케팅, 유통,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생산 단계를 세계적으로 여러 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가치 사슬 활동을 최적화

그림 1 생산 활동으로 본 GVC 개념



출처 : WTO(2019) 기반 저자 작성

□ 국제 무역 내 GVC의 중요성

- 국제 무역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각국이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최종 상품으로 수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재 교역

* 그림 1의 '전통적 무역생산'

- 그러나 이 같은 유형은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약 30%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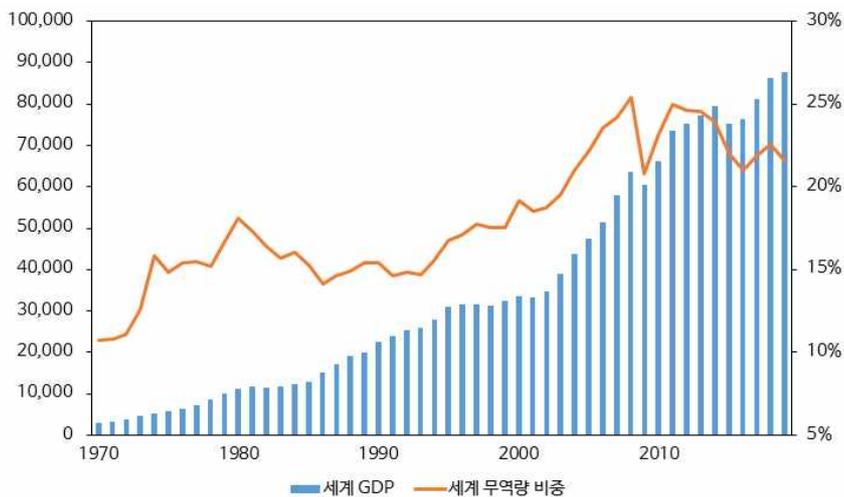
1) 가치사슬(VC)는 기업 이윤 창출의 주 활동과 회계, 정보기술, 인적자원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공급망은 물적인 흐름에 집중한 용어

- 현재 국제 무역의 약 70%는 서비스, 원자재, 부품 및 구성 요소의 거래를 통해 여러 단계의 GVC를 지나 최종 제품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형태

* 2017년, GVC는 전세계 GDP의 20%, 전세계 교역의 74% (한국무역협회, 2020)

- GVC를 통한 무역확산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동력

그림 2 세계 무역 및 경제 성장 추이



출처²⁾ : WorldBank, WTO

- 특히 신흥국은 GVC 참여를 통해 자본집약적 산업에 참여하며 빠른 교역 및 경제 성장이 가능해짐
 -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생산 과정을 통해 R&D 비용, 시행착오 (learning by doing) 등을 절약
 - 한국 또한 60년대에는 외국 반도체 회사들의 단순 조립 가공품을 재수출했으나, 70년 대 반도체 조립 기업들의 설립 이후 공정의 대량 생산과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발전해왔음

2) 세계 GDP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세계 무역량 비중 (=무역량/GDP, USdollar 기준) : <https://data.wto.org>

□ GVC의 블랙스완³⁾ 코로나19

-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 수요와 공급의 붕괴로 기존의 GVC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옴
 - GVC의 변화는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한국 주력 수출 산업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중간재

-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을 고려 중
 - 포춘 1,000 대 기업 중 163개 기업은 1차 공급업체가, 938개 기업의 2차 공급업체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업체가 코로나 19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 (턴 앤 브래드스트리트, 2020)

- 변화하는 리스크 요인
 - 전세계 1,300개의 글로벌 CEO들은 기업 성장의 최대 리스크로 인력관리, 공급망, 지역주의로 회귀 꼽음 (KPMG, 2020)
 - 코로나19 이전 낮은 순위의 리스크 요인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
 - 이 중 67%가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사 공급망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응답

- GVC 붕괴로 인한 즉각적 공급 중단과 매출 감소로 중소기업은 받는 타격이 상당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 70%가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⁴⁾
 - 보유 자원과 자본 접근성 등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 경영란 조차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GVC의 재편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함

3) 기존의 경험을 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번 발생하면 사회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

4) 중소기업중앙회, 202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II. GVC 재편의 원인 및 현황

1. GVC 재편 양상

□ GVC 약화 징후

- 세계 GVC 참여율은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은 빠르게 감소중 (한국무역협회, 2020)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 참여도의 증가율은 전세계적으로 감소세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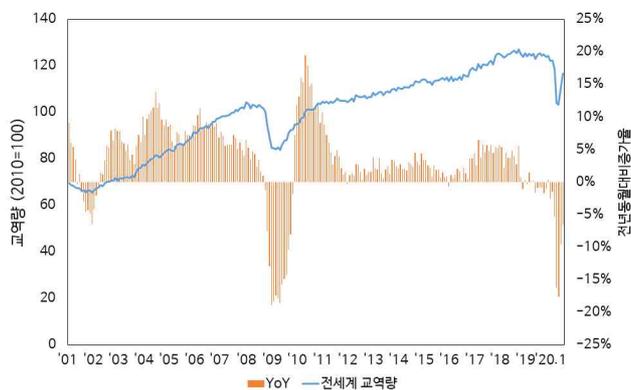
표 1 GVC 참여도 증가율

GVC 참여도 증가율		선진국	신흥국
기간	2000-2010	11%	13%
	2010-2017	1%	3%

출처 : WTO (2019)

- 금융위기 후 이전 전세계 교역량 회복까지 2년이 걸렸으나, 그전의 성장세 수준은 회복 못함 (그림 3)
-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 교역량 회복은 쉽지 않아 전체적인 교역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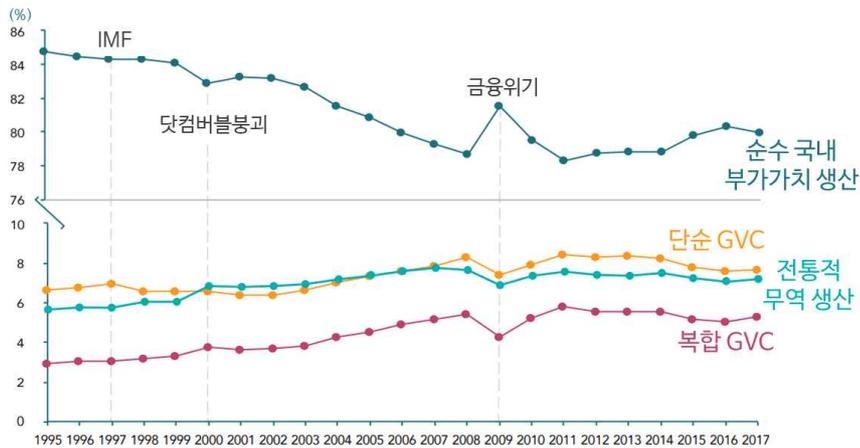
그림 3 전세계 교역량 변화 추이



출처 : CPB, WTO

- 전세계 GDP에서 GVC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뒤 오히려 다시 하락해 답보 중
- 반면 순수 국내부가가치 생산의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GDP 대비 생산활동별 부가가치



출처 : WTO (2019)

□ 최근 GVC 재편 양상

- 글로벌 무역의 지역화 :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거래 감소
 - 국내 순수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와 동시에 단순 GVC의 감소 및 복합 GVC의 증가 양상
- 낮은 노동 비용 및 효율성 위주의 적시 공급의 중요도 감소
 - 안정성·위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 증가
-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변화
 -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 확대 전망

2. GVC 재편의 주요 원인

□ 원인 1. 코로나19를 통한 GVC의 리스크 확인

- 비경제적 리스크인 감염병이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
 - 글로벌 기업들이 원가 경쟁을 위해 구축한 글로벌 생산 분업과 협업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의 외부 충격 취약성이 드러남
 - 중국 등 주요 제조국의 생산 가동 중단과 국경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에 즉각적인 타격 발생
 - 실제 중국과 GVC로 연계된 자동차 관련 기업의 80% 이상이 영향을 받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공장가동 중단비율은 한때 71%까지 도달⁵⁾
 - 한국도 2020년 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의 국내 재고가 소진되면서 차례로 생산 중단 사태 발생
 - 제조업 마비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3차 벤더 부문에 대한 리스크 노출로 견고한 GVC의 구조적 한계를 표면화 (경기연구원, 2020)

- 코로나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적인 비용절감보다 생산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신뢰성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원인 2.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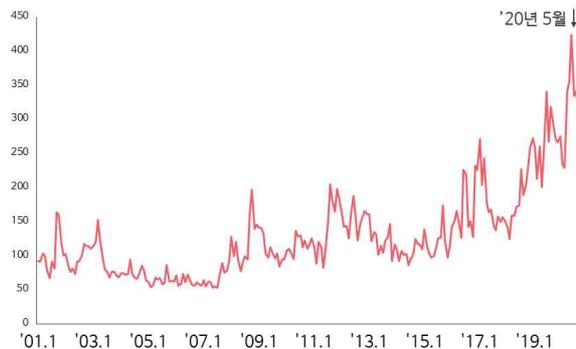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英 브렉시트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적인 확산 양상을 보임
 - 미중 간 무역분쟁은 양국의 생산과 무역 악화는 물론 전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킴
 - 이런 확대 양상으로 인해 기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5)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04.23.)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공장가동비율 29%」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 GVC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충격을 유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강대국의 정치적인 패권 싸움은 GVC를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 만든 모든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에 공급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제재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 중단 ('20년 9월)
- 이와 유사하게 2019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부품 소재 수입 지연에 그치지 않고 GVC 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협
- 이에 따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의 환경 변화로 리스크 분산을 위한 생산 거점 다변화 및 리쇼어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 확대되는 추세

그림 5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출처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은 품질 및 효율성 향상, 인건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하며 리쇼어링 추세를 가속화
- 정치적 상황, 인건비 및 기술유출 등의 경영여건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고려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은 복합적 행태를 보임

□ 원인 3. 신흥국의 부상으로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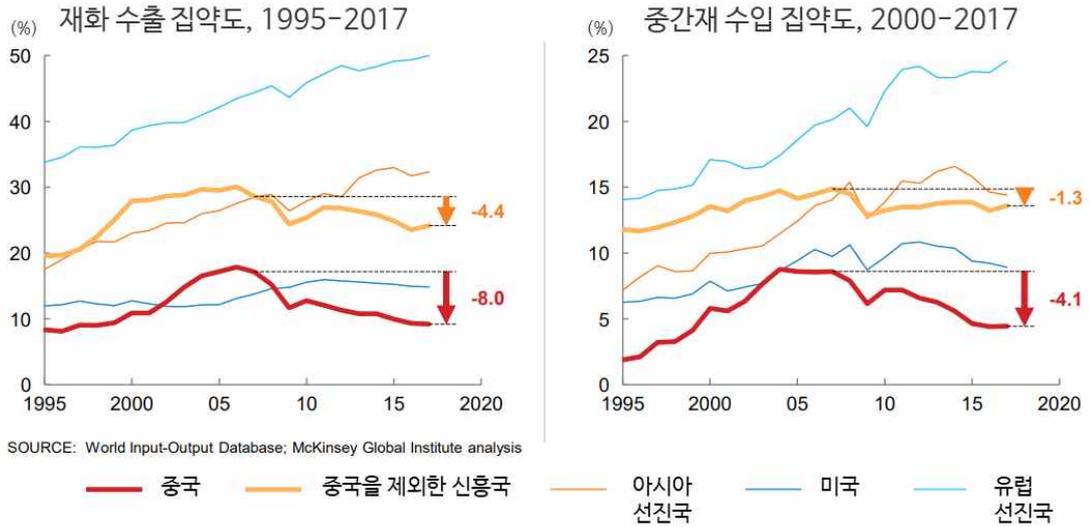
- 과거 GVC의 핵심은 가치창출 전 과정을 국가별로 분산시켜 생산비를 줄이고 적시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
 -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국제 수직분업은 신흥국의 빠른 산업화와 성숙을 가능하게 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흥제조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별 경쟁우위의 개념을 퇴색시킴

-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
 - 최근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해외 기업에게 제공하던 인센티브 철회, 중국 특허 기준 준수 강요 등의 정책으로 중국 내 공장이 주는 혜택이 감소하는 추세
 -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 따르면, 과거 20%p 이상 차이 나던 미국과 중국의 생산 비용이 2015년 기준 미국 100, 중국 96으로 4%p 내외로 감소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 2009년과 2018년 사이 월 최저임금 상승추세를 보면, 중국 상하이 2.6배, 베트남 호치민 2.5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2.6배 상승

- 신흥국의 소득 및 소비 증가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며 중간재 교역 감소 및 조립 가공 역할 축소
 -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억제 정책 및 내수 시장 확대 정책으로 소비중심 성장을 추진해옴
 -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성장축은 부가가치가 작은 조립가공형 완제품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큰 중간재 및 서비스의 생산·수출로 이동 (윤우진, 2017)
 - 중국의 경우 '07→'17 사이 재화 수출 집약도와 중간재 수입 집약도가 각각 8%p, 4.1%p 감소

- 신흥국의 재화 수출 집약도 및 중간재 수입 집약도 같은 기간 각각 4.4%p, 1.3%p 폭으로 감소

그림 6 2007년 이후 중국 및 신흥국의 무역집약도 감소



출처 : MGI (2019)

- 이 같은 임금상승, 기술 발전에 따른 수출 경제 구조 변화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참여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전세계적 GVC 참여도가 하락하게 됨

3. 해외 주요국의 GVC 재편 관련 정책 동향⁶⁾

-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 추세
 - WTO 회원국은 코로나 이후 방역물품 생산 기술이나 수입 관련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인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⁷⁾ 등을 다수 발동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동시에 디지털 역량강화 및 생산설비의 자국 복귀 등을 통한 다양한 공급망 분산 및 제조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진 중

□ 미국

- 민간 주도의 제조혁신생태계 모델 추진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고용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강화
 - 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 (국립제조원)을 신설, 분산된 연방 제조업 지원정책 일원화 추진 계획
 - 국내 일자리 창출과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하 (35%→오바마 25%→트럼프 21%)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라는 경제 슬로건 아래 핵심·필수 산업의 국산화 기조를 더욱 강화시킬 전망
-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투자 지원

6) 일부 자료 KOTRA(2020), 경기연구원(2020) 참고

7)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 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 (출처: 외교통상용어사전)

-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아메리카 리드(America LEADS)’ 법안 발의(2020.9),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투자, 제조업 강화 등에 3,500억 달러 신규 투입 예정
- 2019년 기준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제조업 수입 전년대비 7% 감소),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 (제조업 수입 전년대비 17% 감소)이 나타나는 등 GVC 이동이 활발한 편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 일본

- 최근 해외 생산 공장을 일부만 일본으로 옮겨도 대기업의 경우 비용의 절반을, 중소기업에는 3분의 2를 보조해주는 공급망 개혁 정책 추진
 - 이는 결국 대기업이 복귀해야 중소기업도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법인세, 규제철폐, 경제특구로 환경 개선을 지원
 -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대상 고용·사업 유지 지원, 공급처 다변화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 추진
- 2006년부터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여 중국을 대체할 가치사슬 구축을 준비해옴
 - 對아세안 외국인 직접투자 중 주요국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14년 4.0%에서 2018년 3.9%로 0.1%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내 일본은 10.3%에서 13.7%로 증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c)
 - 2012~2018년 사이, 중국 법인은 33.0%에서 29.6%로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23.2%에서 28.4%로 증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b)
-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 대기업은 코로나 이후 지속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국내 유형 고정자산, 인재육성, 연구개발

순으로 우선 투자할 것으로 응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b)

□ 독일

- 독일은 2003년부터 리쇼어링을 통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견고하지만 폐쇄적인 가치사슬 추구
 - 정부주도 인더스트리 4.0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IT를 접목해 독일 생산 공장의 고질적 문제점인 노후 설비 및 낮은 가동률을 해결
- 비즈니스 디지털화 지원 가속화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확대 예상
 - 2014~2018년 사이 독일의 리쇼어링 건수는 14건으로 30건 이상을 기록한 영국 (36), 프랑스 (35), 이탈리아 (34)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2016년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2,200억 유로)의 2배 이상인 5,700억 유로 수준으로 월등히 높음 (Eurofound, 2019)
 - 독일의 리쇼어링 제조기업은 기계, 전기, 전자제품이 대다수
- 하이테크창업자 펀드(HTGT) 규모 확대, 연방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강화

□ EU

- [중소기업] 혁신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용 산업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물리시스템 기술 분야 지원
- EU 회원국과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로봇, 고성능 컴퓨터,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분야의 R&D 확대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부각되어 단기적으로는 보건분야 중심, 장기적으로는 주요산업에 대한 리쇼어링 또는 지역가치사슬 구축 형태로 재편될 전망

4. 국내 기업의 GVC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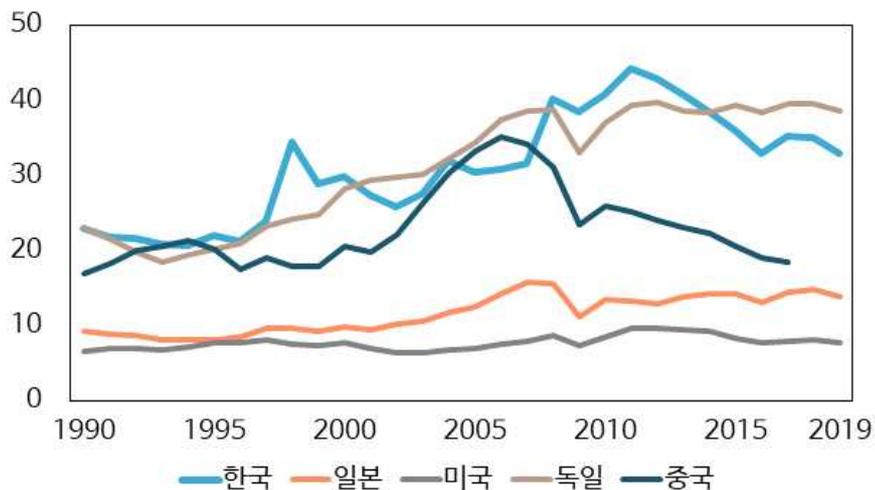
□ GVC 참여 현황

- 1960년 대 단순 조립 가공 수출로 GVC 참여, 이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 달성
 - 저부가가치의 조립·가공으로 시작해 이후 고부가가치인 부품·소재 생산 단계로 이동

- 2017년 기준 한국의 GVC 참여율은 55%로 OECD 주요 18개국* 중 6위로 세계 평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국제무역연구원, 2020a)
 - * OECD 36개국 중 세계교역 비중이 0.5%이상 나라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 수출의 GDP 기여도는 하락세
 - 글로벌 GVC 허브인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 그러나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

그림 7 주요국의 수출 GDP 기여도



출처 : 통계청 (무역의존도)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최종 수요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국제무역연구원, 2019)
 - 한국 (71.5%), 일본 (51.5%), 미국 (48.2%), 독일 (46.4%), 중국 (43.8%)
 - * 2018년 기준, 중국은 2017년 기준
 - 반면 최종 소비재 수출 비중은 10.6%로 중국 (25.7%)과 독일(2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특히 중간재는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분야로 중소기업은 중국의 무역 구조 변화,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 이후 GVC 현황

-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1사분기, 우리나라에 공급망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음 (산업연구원, 2020)
 -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일부 제조 기업은 부품 수급부터 생산까지 중국발 연쇄 섯다운으로 영향을 받음
 -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은 국내 조달 비중이 비교적 높고, 조선,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탄력적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수출 현황

- 코로나로 인해 주요 수요국인 미국, 중국 등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은 과거보다 어려워졌으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건재
 - * 2019년 대비 2020년 수출 증가 : 중소기업 $\Delta 0.2\%$, 대기업 $\Delta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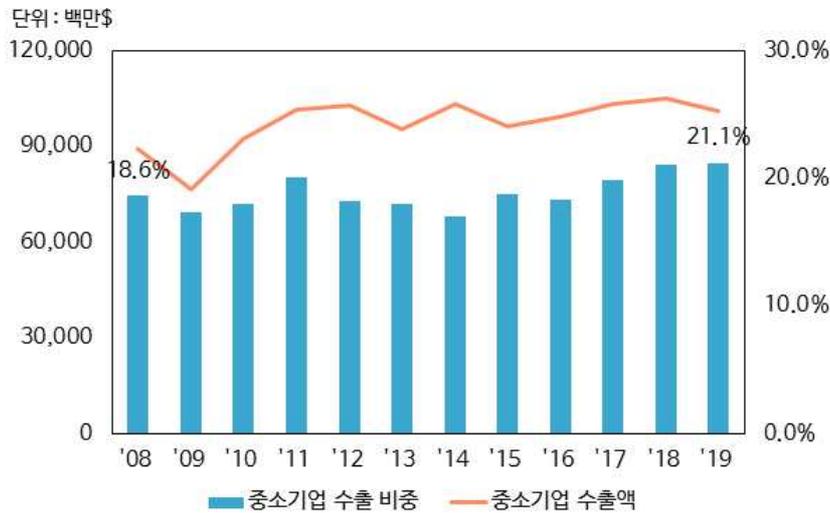
표 2 2020년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소기업	1.7	-13.6	-3.7	-3.6	19.1	-2.5	12.2
대기업	-3.2	-22.3	-7.7	-13.2	3.3	-4.5	0.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중소기업의 수출은 코로나 전후 장·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

그림 8 중소기업 수출액 및 비중 추이



출처 : 관세청

- 해외 주요 공장의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현장은 정상 가동되어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기지 각인

□ 시사점

- 소부장 및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해 GVC 재편에 대응할 필요
 - * 중간재 수입 비중 : 48.2%, 중간재 수출 비중 71.5% (2018년)
 - * 대중 수출 의존도 : 26.8%,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 79.5% (2018년)
- [수입]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하이테크 소부장은 대체 불가 상황을 활용

- 해 무기화 되고 국내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반도체 제작용 EUV 노광기)
- [수출] 신흥국 추격 등으로 원가 경쟁이 과열되거나 (예: ABS 수지, 차량용 열교환기 등), 이후 기술 경쟁 격화로 각국이 하이테크 소부장을 육성해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예:OLED, SSD 등)
- 특히 중간재 무역 확대에 있어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만큼, 중소기업의 시각에 맞는 대응 방안 필요 (산업연구원, 2018)
- 대기업의 수출 품목 비중은 21%이나 금액 비중으로는 62%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품목 기준으로는 56%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0%에 불과함
- 중소기업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경쟁으로 수출입지가 좁아져 판로 확대 여력 부족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과거 생산 극대화 전략에서 유연화 전략으로 전향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성 감소) 리스크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재편 시 대규모의 해외 신규 및 장기 투자 핵심 결정 요인으로 국가의 방역 대응, 보건·의료 수준 등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대요인으로 작용

Ⅲ.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GVC 대응 지원 방안

1. GVC 재편 관련 中企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GVC*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업의 현재 참여해 있는 GVC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
 - *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해 제품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분업 시스템. 예) 중국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 생산
- 코로나로 인해 GVC 재편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GVC 재편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수출 중소기업 475개사
 - 2018~2019년 본회에서 지원한 전시회, 컨소시엄, 시장개척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기간 : 2020.12.16.~12.23.
- 주요 조사 내용
 -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 체감
 - 변화가 주는 영향 및 주요 요인
 - 기업의 GVC 재편 대응방안
 - 정부의 GVC 대응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 정부 대응 정책 수요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

나. 조사 응답 기업 특성

- 지역 기준 : 수도권 (67.2%), 비수도권 (32.8%)
- 업종 기준 : 기타 (21.1%), 전자/전기 (17.1%), 생활용품 (16.2%), 기계류 (16.0%) 등
- 종사자수 기준

구분	비중 (%)
10인 이하	41.9
11~49인 이하	36.6
50~99인 이하	11.6
100인 이상	9.9

- 2019년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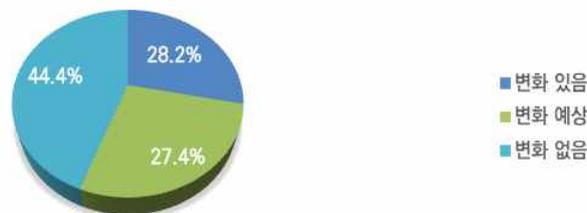
비중 (%)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억 이상	평균 (억)
매출액	34.7	28.4	11.4	25.5	111.84
수출액	63.8	21.7	6.7	7.8	45.26

- 수출권역 기준 (복수응답) :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 51.9%, 동남아시아 41.6%, 북미 33.7%, EU 22.5% 등

다. 조사 결과

□ GVC 재편으로 인한 거래처 · 수출입 대상국 등의 경영상 변화

-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지만, 변화 있음 28.2%, 변화 예상 27.4%으로 총 55.6%가 경영상 변화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응답



- 변화를 겪었거나 예상하는 55.6%를 대상으로 변화의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자재 및 부품 거래처, 수요처 및 수출 대상국, 자사 수출 규모 등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수출 품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 규모의 변화 또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긍정 응답에 비해 5.4%p 높긴하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
- 결국 원자재·부품의 거래처 변화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

(N=475, 단위:%)

	긍정적	보통	부정적
(1) 원자재·부품 거래처 변화	31.8	25.8	42.4
(2) 수요처·수출 대상국 변화	36.0	27.7	36.4
(3) 수출 품목 변화	35.2	43.2	21.6
(4) 자사 수출 규모 변화	34.8	25.0	40.2

-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중무역 분쟁·일본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36.2%), ‘중국의 제조기술 고도화’ (22.3%)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9 GVC 재편으로 인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 (복수응답)



□ 기업의 GVC 재편 대응방안 우선순위

- 중소기업은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의 판매처 다변화에 가장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원자재·부품 거래처 다변화를 꼽음
-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47개사는 리쇼어링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 우선순위

(N=475, 단위:%, 점)

항목	대처 정도					5점 척도
	적극대응 매우필요	적극대응 필요	보통	대응 불필요	매우 불필요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매처 다변화	53.3	31.2	12.2	2.1	1.3	4.33
기술개발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49.1	32.2	14.9	2.1	1.7	4.25
원자재·부품 거래처 다변화	41.1	34.3	19.2	2.7	2.7	4.08
사업모델 다각화	37.7	31.8	24.4	4.6	1.5	4.00
해외 생산기지 국내 회귀*	21.3	14.9	29.8	23.4	10.6	3.13

* 해외생산기지 보유한 47개사 대상

□ 정부의 GVC 대응 정책 관련 인식

- 관세행정지원 :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국내 피해업체 경영 안정 지원
- 해외시장개척 : 화상상담 지원사업,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사업, 긴급 지사화 사업
- GVC 재편 대응 : 배출권 제출의무 유예,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정기검사 한시 유예 등

- 위와 같은 정부의 GVC 대응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0.7%이고, 30.7%가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69.1%가 위와 같은 대응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정책을 활용해본 146개사의 만족도는 78%
- 대응정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147개사의 경우, ‘지원 내용과

현장지원 필요의 불일치’ 29.3%, ‘지원 정책 홍보 부족’ 26.5%, ‘지원 기준 및 대상 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20.4%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를 응답

□ GVC 재편 대응 과제 신규 및 확대 지원 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체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시 소재·부품의 원천 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국산화·자체 수급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등의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5 GVC 재편 대응 정부 정책 수요도

(N=475, 단위:%, 점)

항목	정책 수요					5점 척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비대면 수출 지원 체제 마련	48.6	37.9	10.5	2.3	0.6	4.32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44.2	40.6	13.5	0.0	1.7	4.26
소재·부품 국산화 및 자체 수급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43.2	42.5	12.0	1.9	0.4	4.26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33.7	43.6	20.0	2.3	0.4	4.08
대중소기업 동반 국내 회귀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33.3	37.7	23.8	5.1	0.2	3.99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확대로 공급망 분산	29.9	45.1	19.6	4.4	1.1	3.98

라. 시사점

- GVC 재편으로 인해 기업들은 원자재·부품 거래처, 거래 대상국, 수출 규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다른 요인들 보다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 기업은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매처 다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체제 마련에 대한 정부 지원 수요도 가장 높게 응답함
 - 코로나19로 드러난 중국 중심의 GVC 체제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외의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GVC를 조정하는 만큼, 일본과 차별화된 신남방 정책 요구될 것
- 또한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 수요로는 소재·부품의 원천 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국산화·자체 수급 그리고 이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코로나 대응 정책 중 비대면 수출 지원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산화를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2. 설문조사 기반 GVC 재편 대응 방향

가. GVC 재편 대응방안의 중소기업 주요 이슈

□ GVC 재편 양상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의 주요 이슈

- 지금은 GVC 재편을 통한 안정화와 세계 경제 회복 시 수출 및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인 선점을 위한 중요한 시기
- 앞서 II 장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GVC 재편의 가장 큰 특성은 국제 무역의 지역화, 효율성 위주 적시 공급 중요도 감소,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변화임
 - 이는 결국 거래처 다변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이전에 따른 국제적 수요 감소, 기술개발·혁신·디지털전환 등을 통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 GVC 재편으로 인한 경영상의 변화의 체감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은 비대면 판로 확보와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두 가지에 대해 가장 큰 필요를 느끼고 있음
- 정부 역시 단기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판로 등 정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기술자립과 고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중

□ 정부 GVC 재편 대응 방향

- GVC 재편 관련 추진 사업 (관계부처합동 2020.4.8.발표)
 - 무역금융 공급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유턴기업 지원확대,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공급 안정화 등에 주력

- (2.20일) 무역금융 260.3조원(+3.1조원) 공급, 항공운송 운임 관세특례 부여 등
- (2.28일) 유턴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입주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 (4.8일) 무역금융 36조원+α 추가공급, 기업인 출입국 애로해소, GVC 재편 신속 대응*, 기업 R&D 부담경감을 통한 최대 2.2조원 규모 지원 등
 - * 사업 내용 : 신뢰성·양산평가·기술 지원, 100대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배출권 제출의무 유예,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유예품목 확대,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 트랙 대상 확대,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유예, 6대 업종별 상시점검 및 관리

- 정부는 GVC 재편 대응 전략으로 특히 국내유턴 촉진,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한 GVC 허브化에 중점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1)
 - 유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세제·입지·보조금·설비·R&D·규제·인력 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도입
 - R&D 센터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비도 유턴 기업 평가 기준으로 도입

□ 설문조사 기반 정책 방향 선정

- 그러나 기존⁸⁾ 및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유턴 의지는 크지 않음
- 이에 본 보고서는 「GVC 재편 대응 관련 中企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 단기적으로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거래처 안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GVC 효율성 제고 전략과 (2)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소재·부품 공급 안정성 강화와 생태계 자립화를 목적으로 하는 GVC 유연화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함

8) 중국,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 중 76%가 국내 복귀 의사 없음 응답 (중소기업 중앙회, ' 20.6)

표 6 GVC 재편 中企 지원 정책제안 개요

정책 방향	(단기) GVC 효율성 제고	(장기) GVC 유연화
정책 수요*	비대면 수출 지원	핵심 소재·부품 R&D 및 자체수급 생태계 구축
주요 관련 정책	중기부,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고려 사항	정책 홍보, 현장 수요 반영, 지원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GVC 재편 대응 관련 中企 정책 수요」설문조사에서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정책

나. 관련 정부 진행 사업

□ (1) 판로 다변화를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

-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중기부, '20.9.14.)
 - ❶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
 - ❷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 :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신설
 - ❸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
 - ❹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

□ (2)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자체 수급

- 「소부장 2.0 전략」 (산업부, '20.7.9)
 - 주요 내용 : ❶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❷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❸추진체계 지속 강화를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 「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10.14)

① 소부장 R&D 전략 다각화

- R&D 핵심품목 다변화 (기존 100개→185개로 확대), 글로벌 첨단생산지
기화 지원 (유턴기업 지원 및 ZERO 3C, *ZERO Cost, Claim, CO2) emd

② R&D 성과 창출 기반 강화

- 기술→시장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 강화 (부처간 협력 확대, 대학·
연구소-중소기업 협력사업 신설 추진 등), 소부장 대중소기업 협력
R&D 지원 확대 등

③ 협력·축적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 소부장 연구-산업-지역 현장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첨단 연구 실증 지원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다. 중소기업의 GVC 재편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 제안

1) 中企 비대면 수출지원 정책 보완 및 확대

□ 비대면 수출 지원 정책 보완할 점⁹⁾

- 중소기업은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해 비대면 수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는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산업연구원, 2020)
 - 비대면 수출 활동을 통해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이행을 한 기업은 설문 응답 기업 992개 중 단 35개 사
 - 온라인 수출이 곤란한 제품 특성 (43.0%), 성과까지 긴 시간 소요 (31.5%) 등의 이유로 수출효과가 없다고 응답
- 기술혁신제품 등 바이어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제품을 볼 수 없는 온라인 상담의 한계로 고가 제품의 계약 달성이 어려움
- 수출 업종별·규모별 온라인 수출 도입 의사 상이함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2020)
 - 식품, 섬유패션,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도입 의사가 높은 반면, 기계/전기전자나 철강 등은 온라인 활용 없이 기존 체제 유지하려는 입장
 - 연간 수출 규모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이 100만 달러 초과 수출 선도기업보다 온라인 수출 활용과 신규 도입 의사가 더 높음
- 현재는 온라인 제품홍보 부스임차, 업체별 온라인 수출상담 주선, 상담 일에 한해 통역 서비스 및 상담 장소·기기 제공 등으로 코로나 이전 수출 전시회 지원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보완 및 확대 방안

- [정책제안] 해외 온라인몰 입점 이후 지원 방식 및 온-오프라인 연계 확대
 - * 중소기업은 B2C 형태보다 B2B 형태의 외부 구축 플랫폼 활용(60.7%)과

9)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2020)이 2020년 9월 수출 중소기업 1,0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B2B 자체 쇼핑몰 구축 (23.1%)을 선호

-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용 영상 콘텐츠 제작의 비용·시간 부담을 덜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중간재 판매에도 도입해 온라인 실시간 바이어 대응

2) GVC-신남방 정책¹⁰⁾ 연계

□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 환경 변화

- 최근 신남방 지역 내 가치사슬 허브의 다각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로 인한 경쟁 심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투자 정책은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
-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이후 아세안 지역 투자와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거나 더 높아질 전망¹¹⁾ (KOTRA, 2020)

□ 일본의 신남방 중심 공급망 다변화 지원 정책

-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생산거점 다변화 및 일본 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해 1차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 30개사를 선정 (’ 20.7)

10) 신남방 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외교정책

11) 현장에서 확인한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움직임.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0.08.18.

표 7 일본의 제조업 등 주요 산업 공급망 다변화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일본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소재의 생산거점을 일본 국내로 이전 - 추경예산: 약 2200억 엔 - 지원내용: 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도입 - 지원비율: 대기업 1/2, 중소기업 2/3
해외 공급망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국가에 생산설비 투자, 시장조사 등을 실시 - 추경예산: 약 235억 엔 - 지원내용: 생산설비 투자, 실증사업 시행, 시장조사 - 지원비율: 대기업 1/2, 중소기업 2/3

출처 : KOTRA(2020)

□ 아세안 진출 기업 지원 방안 확대 필요

- [정책제안] 일본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국에 대한 생산 거점 집중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리쇼어링) 외에도 아세안 등 제 3국에 생산설비 도입 시 비용 지원
- [정책제안] 아세안 국가별 밸류체인 상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하는 밀크런¹²⁾(Milk-Run) 방식 신규 도입 및 지원
 - 새로운 공동구매방식을 통한 아세안 현지 중소기업의 물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아세안 지역도 단순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은 미흡해 원부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에서 원자재 및 2차 가공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이 20.0%로 높게 나타나며, 중국·베트남·한국으로 부터의 공급망 유지를 희망함¹³⁾

12) 밀크런 방식이란 복수업체가 공통으로 조달처를 새로운 국가로 혹은 동일 국가 내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경우 공동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관계부처 합동, '20.7)에서 신규 도입 이후 중기중앙회·산업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 개최 ('20.12)

- 닛산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밀크런 방식으로 부품 조달 비용 및 기간을 절감

3) 국내 소부장 생태계 자립 강화

□ 소부장 생태계 자립화에는 중소 유턴 기업 타깃 지원보다 밸류체인 상 경제주체 간의 연대가 중요

- 소부장 유턴은 '17년 (2개) → '18년 (5개) → '19년 (14개) → '20년 (18개)로 증가 추세¹⁴⁾
-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글로벌 대기업 유턴 사례가 적음
 - 미국 : 포드, 제너럴모터스, 애플, 인텔, 보잉 등
 - 일본 : 캐논, 파나소닉, 소니, 혼다, 미쓰시타 전기공업, 쉐우미 등
 - '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대기업 유턴 공장은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기공이 유일 ('19.8)
- 유턴기업 조건 완화 및 추가적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확보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생태계 자립화 방안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리쇼어링 시 추가 인센티브

-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협력형’ 복귀기업을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3)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GVC 변화요구와 베트남 진출기업 영향.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2020.12.15.)

14) 산업부(2021).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1년반, 소부장 기업현장보고서 (2021.1.22.)

- 이와 더불어 협력형이 아닌 ‘대중소 상생형’ 복귀기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 기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R&D 및 고용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지원 필요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중소 상생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동반 국내복귀형’을 추가 도입
 - * 현재 3가지 유형 존재(‘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
 - 특히 185개의 R&D 핵심품목에 대해 유턴기업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복 지원하는 방안 고려
 - * 「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중 ‘소부장 R&D 전략 다각화’과 연계

- 중소기업은 대기업 통한 GVC 참여*가 많은데, 대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턴 효과 클 것으로 기대
 - * 국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업체당 평균 모기업 수는 평균 10개 내외, 매출액 중 대기업 납품 비율은 44.5% (이준호, 2018)
 -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이전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지역 가치사슬 생태계 구축 가능
 - 과거 외환위기 시, 한시적 수도권 입지 규제로 1999년 파주 LG-필립스 LCD 유치 성공 경험 반추
 - 대기업 유턴 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큰 파급 기대효과
 - * 삼성전자 해외사업장 (베트남 제2공장)의 생산물량 50% 국내 이전 시, 6.9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5.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7.1만명의 취업유발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9)

□ 공급망 변경 국내 기업 지원

- [현황] 유턴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국내 수요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부가, 구매조건부 R&D 지원, 수출바

우체 지원 사업 등의 혜택 제공

* 협약 평가 결과 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

○ [정책제안] 해외 원자재·부품 등을 구매하던 수요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망 변경 시, 유턴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

- 현재 제공하는 혜택은 * 생산 소재지를 국내로 옮긴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산업기술진흥회는 수요기업에게 신뢰성 보증 지원 사업 추진 중 (수리·대체 비용, 리콜 비용 등, '20년 1,000억원 규모)

- 공급망 국내 변경은 기업의 물리적 유턴 없이 국내 생산 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체 구매액 대비 국내 비중, 금액 수준 등에 따라 유턴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인센티브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공급 기업은 판로확대, 수요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는 동시에 GVC의 국내로 조정 (RVC화) 기대 가능

IV.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전무후무한 충격은 기존의 낮은 비용과 효율성 위주 생산의 한계를 드러냈고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등장시켰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GVC의 견고한 사슬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다. 이런 변화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 중국과 신흥국의 기술발전으로 중간재 자체 생산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GVC의 국제 수직분업 참여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그만큼 산업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 중에서도 중간재와 중국의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외부 경기 변동과 최종 수요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야기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GVC 재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VC 재편 관련 인식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은 GVC 재편으로 인해 거래처나 거래 대상국, 수출 규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수출 품목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으로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꼽았다. 이 외에도 미중무역 분쟁·일본 수출 규제 등의 보호무역 주의, 중국의 제조 기술 고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차원에서는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매처 다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체제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소재·부품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자체 수급, 이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판로 안정화를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시 실적과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존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국내 복귀 기업 외 생산 거점 변경 기업 지원과 아세안 현지 국가의 부품 조달을 돕는 밀크런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 동시에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 동반 리쇼어링 시의 추가 인센티브, 공

급망 회귀 기업 지원 방안도 제안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정책 운영에 본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Dun&Breadstreet (2020). Business Impact of the Coronavirus: Business and Supply Chain Analysis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Special Brief*.
- Eurofound (2019). Reshoring in Europe: Overview 2015-2018.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orbes (2020). Coronavirus Could Be The End Of China As A Global Manufacturing Hub.
- KIEP (2020). Current GVC Structure and Strategies to Upgrade Korea's Productin Network in ASEAN and India. *World Economy Brief*.
- KPMG (2020). KPMG 2020 CEO Outlook: COVID-19 Special Edition.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McKinsey&Company
- WTO (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 KOTRA (2020a).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 방안.
- KOTRA (2020b).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 경기연구원 (2020).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은?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19). 세계 소비재 시장 잠재력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a).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b).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c).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를 위한 아세안 투자환경 점검. 한국무역협회.
-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리쇼어링은 탈출구 아닌 재편모델, 유연하게 넥스트쇼어링을 준비하자.
- 산업연구원 (2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한국 산업의 대응.
- 산업연구원 (2018). 기업규모별 수출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 이준호, 김태환 (2018).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환경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 8권 제 4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중소기업 수출영향 및 디지털 수출혁신 전략 활용실태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2019).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